



최정화전 – 살어리 살어리랏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광막(曠漠)함을
 時間와 空間의 개념으로 인식하고는
 우주(宇宙)라고 이름 하였다.
 이 시공은 변화(變化)한 변역(變易)의 존재로서
 수시(隨時) 수처(隨處)로 변역한다.
 그 변역은 그림으로 하여 도(道)를 따른다.
 이 도는 혼연일체(渾然一體)하여 너무나 지극하여
 어떻게 이름 할 수 없어
 태극(太極)이라고 한다.
 그 속에 동정(靜動)이 음양(陰陽)을 이룬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은 오행(五行)으로
 생생지도(生生之道)를 전개 만물을 이룬다.
 이로써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음양(陰陽)의 변상(變相)이다.
 실상(實相)은 태극이요, 음양은 태극의 변상이라.
 삼라만상은 변상의 변상이니, 곧 비상(非相)이며
 또한 비비상(非非相)이다.
 이는 변역(變易)의 도리로서
 우주는 본질적으로는 일원(一元)이자
 전개(展開)로서는 다원(多元)이다.
 그림으로 무극(無極)이라 함이다.
 "살어리 살어리랏다."에서
 최정화(崔正化)는
 온 세상이
 무이(無二)요 무이(無異)라 한다.

너 없는 나 없고, 나 없는 너 없다는
 그의 심미(審美) 경계(境界)는
 카오스가 곧 코스모스임을 여실히 전개한다.
 천문(天文), 지문(地文), 인문(人文)을
 과거, 현재, 미래에 일원화(一元化)하여 버렸다.
 물이일체(物我一體)의
 구경채(究竟處)이자,
 이변(離邊)의 경계로
 중화(中和)의 무극(無極)의 미학(美學)이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화엄(華嚴)이며
 처처사사(處處事事)가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존재(存在)를 여의고 존재성(存在性)을 보임이요,
 경향(傾向)을 본성(本性)으로 함이다.
 기자(既濟)가 끝이 아니고
 미제(未濟)로서 생성임을
 "살어리 살어리랏다"에서
 여실히 이렇게 보여준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태극(太極)이 무극(無極)임을 보여주는데
 "작가(作家)"인 것이다.
 최정화는...